추석 농식품 구매 예상비용 34만여원

품목별로 떡 비중이 68.4%
차례상 올리는 품목도
고인이 좋아했던 것 위주로
구입하는 등 구매경향 변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명절 음식, 제수용품을 농식품으로 구매할 때 지출되는 예상비용은 34만 32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3%, 2019년 보다는 5% 감소한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추석 농식품 구매변화를 전망하고, 코로나19가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변화'를 분석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소비자 874명)와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의 최근 3년간 농식품 구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친인척 방문과 가족모임이 줄었고, 농식품 대신 저렴한 다른 품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 음식은 중간 또는 완전조리식품의 구입 비중을 늘려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떡(68.4%)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튀김류(17.6%), 육류(8.1%) 순이었다.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도 전통적 제수용품 보다는 가족이 즐겨 먹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품목 위주로 구매하는 등 구매경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농식품 소비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응답자의 62%가 추석용 농식품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1~20만원을 더 지출하겠다는 소비자도 44.4%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석 특수가 위축되면서 과일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줄어든 대신 서류, 건·견과류, 가공식품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8~2020년) 추석 전 1주일 간 농식품 구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추석 관련 농식품 구매액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감소했다. 재택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서류, 건조과일, 견과류, 가공식품의 소비는 늘었다. 반면, 선물로 인기를 끌던 과일류나 특작류, 축산물 소비는 감소했고, 곡물류 중 잡곡류의 구매가 크게 감소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우수곤 과장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식품 부문의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기획 행사를 마련해 농·축산물 선물구매를 유도하고, 조리방법 등을 첨부한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판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학생 학습프로그램 '다채'

NH농협은행, 온라인 교육플랫폼 '초록샘' 구축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초록샘'을 구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초록샘'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협은행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제작한 교육플랫폼이다.

도내 농촌지역 초·중·고교생이면 회원가입 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재능기부, 화상강의 등을 비롯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국·영·수를 포함한 교과과정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기출문제 및 인성·지능·적성검사가 제공되며 교육관련 뉴스 및 입시전략 안내, 대형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의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4차 산업, 정보기술·코딩,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과 전문가들의 특강도 마련됐다.

초록샘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역량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 본부장은 "농협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출시했다"며 "농업·농촌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써 앞으로도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자동차기술원 혁신성장 업무협약 체결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이하 전북조달청)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은 7일 전북조달청에서 도내 자동차분야 창업벤처·혁신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우수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 발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과 벤처나라 등록에 관한 사항, 혁신시제품 지정 및 매칭에 관한 사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과 혁신시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공공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우수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 및 혁신시제품 후보기업을 발굴해 전북조달청에 추천한다.

전북조달청은 추천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벤처나라' 및 '혁신장터' 등의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및 혁신시제품 심사·지정을 지원하며 추후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등 상위 조달시장을 통해 국내 공공조달시장 및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및 혁신시제품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7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고치 경신 해상운임문제 애로사항 청취

중기 옴부즈만, 전북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와 함께 7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해상운임문제에 대한 애로점이 제기됐다.

엘리베이터 업계 최초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중소기업(G-PASS)로 선정된 한독엘레베이터 유정목 대표는 "해외 특정지역의 해상운임 상승폭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경예산 142억원을 투입해 신설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소개한 뒤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청도에서 설립된 이후 2018년 익산 쥬얼리 임대공장에 입주한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인 ㈜하이쥬얼 방상명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해외바이어가 파산 신청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미수금 피해에 대비한 무역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미회수금을 보상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수출새싹기업 전략물자 수출 지원,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록 기간 단축, 모조품 수출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완화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수출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적기에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는 지난 5월 부산·경남, 대전·충남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으며, 올해 11월 대구·경북에서 네 번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전북농협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임실치즈농협은 7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방문해 '축산물 情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추석, 우리 축산물로 정 나눠요'

전북농협, '이웃사랑 축산물 情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은 7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방문해 '나눔축산 추석맞이 이웃사랑 축산물 情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임실치즈농협 임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농촌지역 주민들과의 협력과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와 마을회관 3곳의 소외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에 임실N치즈 182kg을 전달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며 "농·축협과 축산인들의 지속적인 나눔축산운동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동섭 조합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축산 관련 단체와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신협, 연 최고 7% 정기적금 출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연 최고 7%의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현대카드연계형)'을 출시한다.

이 적금은 제휴카드사와 연계한 고금리 적금상품으로 무려 연 최고 7%의 고금리 상품으로 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협 제휴 현대카드 발급 후 발급월 포함 6개월 간 총 100만원 이상 이용 시 우대이율 4.5%p를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신협 입출금 통장에 자동이체 등록(0.2%p),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전 전월까지 연속 3개월간 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0.1%p), 현대카드 결제계좌로 등록(0.2%p) 시, 총 0.5%p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협-현대 제휴카드는 총 4종으로 개인카드 3종과 개인사업자카드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회비가 저렴해서 부담이 없고 모든 가맹점에서 기본 할인이 들어가는 신협-현대 ZERO카드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이영태 기자

도내 소상공 제품 판매 온라인 전환 지원

경진원 소상공광역지원센터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판매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 광역센터)는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 방식 온라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시장에 발맞춰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기반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진원 광역센터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도내 263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홍보영상 촬영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모집 3개월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원업체 대상으로 이루어진 중간 만족도 평가에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덧붙여 모든 지원 분야의 패키지화 등 지원 확대 요청이 쇄도했다.

사업에 참여한 제이포니&한옥애향기 체험공방의 정원아 대표는 "코로나로 체험 공방의 운영이 어려워져 온라인으로 핸드폰 케이스 DIY 키트와 관련 재료 판매를 시작했다"며 "온라인 전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농업회사법인 대일국제종묘(주)의 이태송 대표는 "채소 종자를 연구·개발해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번 코로나로 해외 영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식의 SNS 마케팅을 시작하는 와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협업하며 결과물의 성과가 극대화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의 기반을 구축해 비대면 시대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진원 광역센터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콜센터(☎15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태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서부산림청, 보안 강화 '망 분리' 인프라 구축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8월 24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망 분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망 전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망 분리란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를 대응하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망분리 PC에서는 일반 USB 사용이 불가하고 보안 USB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업무망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고 인터넷망에서는 자료편집이 불가해 전산장비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되며, 서부청 청사 건물에는 각 층마다 무선랜차단기를 설치, 와이파이(wifi)나 핫스팟 연결이 불가해 외부로부터 해킹에 안전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외 송금, 쉽고 빠르게'

전은 'Wing'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의 'WING(윙) 해외 송금서비스'와 'PFCB 실시간 송금 서비스'가 캄보디아로 송금하는 자영업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고 언택트 시대를 맞아 개인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WING(윙) 해외 송금 서비스'는 캄보디아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의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빠르고 쉽게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금 수취 방식인 WING(윙) 송금은 무계좌 방식으로 수취인의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송금 가능하며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받은 고유 비밀번호와 본인의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캄보디아 내 모든 WING가맹점에서 출금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PFCB 실시간 송금'은 전북은행의 자회사인 프놈펜 상업은행(PPCBank)에 계좌를 보유한 수취인에게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보통 2일에서 3일간의 처리 기간이 걸리는 일반적 해외 송금 방식과 달리 PFCB실시간 송금은 수취인의 계좌에 즉시 입금이 가능하며 계좌 선 조회를 통한 안전성 증대 및 국외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양 서비스 모두 전북은행 전 영업점, 개인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앱(App)을 통해 이용가능하며 캄보디아로 정기적인 송금시 '자동송금신청' 후 해외송금전용 저축예금에 원화를 입금하면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송금도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송금 거래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영태 기자